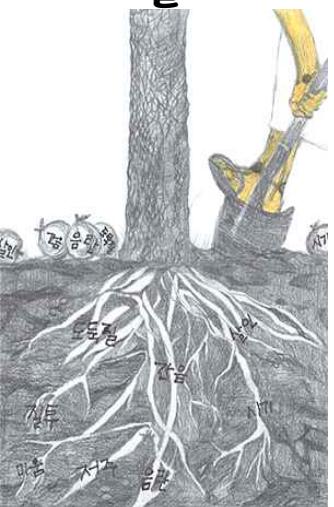


##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52:13-53:6



이사야 53장 5절 새번역

5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_\_\_\_\_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_\_\_\_\_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_\_\_\_\_ 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_\_\_\_\_ 나았다.

개역개정

“그가 찔림은 우리의 \_\_\_\_\_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_\_\_\_\_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_\_\_\_\_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_\_\_\_\_ 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고난을 우릴 위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는 내 죄악으로 인해 내가 ‘상함’을 입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입으셨고,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죄로 인해 죽었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_\_\_\_\_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_\_\_\_\_에서 우릴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까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을 내세운 채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신다면,  
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는 곳이 바로 ‘\_\_\_\_\_’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분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

### 로마서 1장 29절 ~ 31절

29 사람들은 온갖 \_\_\_\_\_와 악행과 탐욕과 \_\_\_\_\_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_\_\_\_\_ 거리는 자요,

30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_\_\_\_\_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_\_\_\_\_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_\_\_\_\_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 로마서 1장 21절

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_\_\_\_\_ 해드리거나 \_\_\_\_\_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_\_\_\_\_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_\_\_\_\_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_\_\_\_\_ 하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_\_\_\_\_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_\_\_\_\_ 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내 생명의 주인될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_\_\_\_\_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로마서 1장 29-31에 있는 그런 죄의 열매들은 항상 맷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_\_\_\_\_ 들이 아니라, **죄의** \_\_\_\_\_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 결론: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희개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